

# 受姓始祖並上世祖

## 都稽子襄

史記列傳曰南越相呂嘉與其王建德叛元鼎五年以衛尉路博德爲伏波將軍出桂陽下匯水主爵都尉楊僕爲樓船將軍出豫章下橫浦伐南越六年越人皆降呂嘉建德夜與其屬數百人亡入海以船西去伏波又因問所得降者貴人以知呂嘉所之遣人追之以其故校尉司馬蘇弘得建德封爲海常侯越郎徐廣曰南越之郎官都稽徐廣曰表得嘉封爲臨蔡侯索隱曰按表屬河內史記封侯表曰都稽以故南越郎聞漢兵破番禺爲伏波得南越相呂嘉功侯元封元年四月癸卯侯孫都元年子襄嗣爲臨蔡○姓苑曰都姓出自漢臨淄侯都稽稽黎陽人也佐高祖定天下分士封侯舊譜○按此與史記所載世代有異分土地名一字又相所載○左恐或姓苑說傳書之誤耶依前所錄備後參攷

## 수성시조 및 상세(구보소재역)

### 受姓始祖(都)稽와襄(譯)

史記列傳에 이르기를 南越相인 呂嘉와 그 王建德이 반란을 일으켰다. 元鼎 5년(기원전 112)에 衛尉의 벼슬에 있던 路博德을 伏波將軍으로 삼아 桂陽下의 匯水에 나가고, 主爵都尉 楊僕을 樓船將軍으로 삼아 豫章下의 橫浦에 나가 南越을 치게 하였다. 6년(기원전 111)에 越人이 모두 항복하였다. 呂嘉와 建德이 밤을 틈타 그 무리 수백인과 더불어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함에 伏波는 또 항복한 자에게 물어서 呂嘉를 아는 貴人을 보내어 뒤쫓게 함으로써 校尉司馬蘇弘이 建德을 사로잡았으므로 海常侯에 封하였다. 越郎(徐廣이 이르기를 南越의 郎官이라 하다.) 都稽(徐廣은 이르기를 封侯表에는 孫都라 하였다)는 呂嘉를 사로잡음으로써 臨蔡侯(索隱에 이르기를 臨蔡는 封侯表에서 河內에 屬한다고 하다.) 封하였다.

史記封侯表에 이르기를 『都稽은 南越郎으로서 漢兵이 番禺을 擊破한다는 消息을 듣고 伏波를 도와 南越相呂嘉를 사로잡은 공을 가상하여 封侯하였다(元封元年—기원전 110—孫都元年)。』 그 아들 襄이 이어받아 臨蔡侯가 되었

다. 『고하였다.』

姓苑에 이르기를, 『都姓은 漢의 臨淄縣에서 나왔으며, 都稽는 黎陽人으로 천하를 평정함으로써 토지를 나누어 받아 封侯되었다고 하였다.』

※ 史記와 姓苑에 記錄된 바를 살펴보면, 世代(年代)에 差異가 있고, 分土地名에도 一字 차이가 있다. 姓苑에 傳書한 것이 잘못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 전례에 따라 함께 갖추어 기록함으로써 후일의 참고에 資하고자 한다(甲戌譜所載譯).

### 諱祖

漢成帝鴻嘉時自長安奔高句麗琉璃王與屋智句鄒都祖三人行至卒本

爲朱蒙

太子三人因佐之正國治民有功

### 휘 조(諱祖)

漢成帝鴻嘉時(紀元前二〇〇~一七)에 長安으로부터 高句麗로 왔다. 高句麗琉璃王과 더불어 屋智·句鄒·都祖 三人이 卒本(今 成川府로서 平安東道에 있으며, 高句麗始祖朱蒙이 도읍한 곳임)에 이르러 朱蒙의 태자(유리왕)를 도와서 正國治民한 공이 있다(見東史).

今成川府左平安東道 高句麗始祖朱蒙所都

### 諱彌

見東史

東史列傳曰漢桓帝延熹時佐百濟蓋婁王王聞彌之妻艷召彌語曰婦人之德貞潔爲先然在幽昏無人之地誘以巧言能不動心者鮮矣彌對曰人情不可測若臣之妻雖死無貳心者也王欲試之留彌以事使近臣詐爲王以抵其家語彌妻曰吾聞爾美已與爾夫博賭得之明日入爾爲宮人將亂之彌妻曰王無妄言吾敢不順請王先入室吾更衣而進誑飾一婢子薦之後王知見欺大怒誣都彌以罪權其兩眸子寘小

船泛之江更引其妻強近之彌妻曰今良人已逝妾身不能自保敢爲王辭但今有月事請竣他日王信之少懈彌妻逃至江口號天痛哭忽遇行船自至乘至泉城島即今熊川或傳其地有都彌塚云其夫不死已先往矣與邂逅掘啖菜葉根而居或云因與同載奔高句麗詳見三綱行實錄史官有詩曰敢瞻雙眸放大洞我儀我特真天合國君威柄奈如何縱備宮人矢靡他又

詭言逃走出重闔天地神明皆佑助流涕漣沔傍水濱泉城島上見良人

### 휘미(諱彌)

東史列傳에 이르기를 後漢桓帝 延熹時(一五八~一六六)에 百濟蓋婁王을 보좌하였다. 王이 彌의 夫人의 容色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彌를 불러 이르기를 『婦人の德이 貞潔함이 증오하지마는, 으스스한 無人之境에서 교묘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다. 彌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지만, 臣의 妻같은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 마음이 없으리다.』하였다.

王이 이를 시험하고자 彌에게 일말 시켜 머물러 있게 하고서, 近臣으로 하여금 王으로 거짓 꾸미어 그 집에 가서 彌의 妻에게 이르기를 『내 너의 아름다움을 인히 들어 아노라. 내 스대의 남편과 내기를 하여 너를 얻었으니, 명일 너는 들어와서 宮人이 될 것이며, 나는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하였다. 彌의 妻이 이르기를, 『王은 妄言이 없었을 것이니 제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王께 청하옵는바, 내 먼저 입실하여 웃을 갈아입고 나오리다.』하고 한 婢子를 거짓으로 꾸며 들어가게 하였다. 후일 王이 속은 것을 알고 大怒하여 都彌에게 그 罪를 주어, 두 남동자를 빼고 자기 妻에 실어 가뉘고 떠났다.

다시 그 妻를 불러와 강제로 가까이 하게 하니, 彌의 妻이 이르기를, 『이제 良人(남편)이 이미 죽었으므로 첩의 몸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으니 감히 王의 命을 사양하리까. 다만 지금 月事[月經]가 있으니 청컨대 Tail을 다려 주소서.』하였다. 王이 이를 믿고 조금 경비를 게을리 하는 틈을 타서 도망하여 강가에 이르러 호천동공하였다. 우연히 지나가는 조각배가 자연히 다가오므로 그 배를 타고 泉城島漢江 하류에 있었다고도 하며, 일설에는 현재의 熊川이라고도 하고 그 곳에 都彌塚이 있어 전하여진다(에 이르니 그 夫는 죽지 않고 이미 와 있으므로 邂逅하여 나뉘 뿌리를 캐어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또는 함께 高句麗로 피해 가서 살았다고도 한다. 상해한 것이니

綱行實錄(世宗年刊行)에서 볼 수 있다. 史官의 詩에 이르기를,

두 눈동자 모두 빼어 큰 강에 내쳤으니  
나라의 권세는 어찌 그와 같았던고.  
나의 거동 나의 심질 하늘 뜻에 어울리니  
모여 선 宮人들도 화살을 못 쏘더라.

또 이르기를,

거짓말로 도주하여 검첩 문을 빠져나서  
구슬피 흐른 눈물 물가에 이르도다.  
하늘 땅 신명들이 모두 함께 도왔으니  
천성도 위에서 지아비를 만났다네.

※ 延熹 원년대는 개루왕 삼십일년(一五八)으로 百濟에 사관한 시대이며, 삼강행실록 및 동사열전·동국통감·삼국사기 권지사삼팔에서 볼 수 있다.

### 諱儒

按角千金公庾信實記云公與角干佐新羅眞德王三年以左將戰于葛嶺縣殺百濟正福太宗王七年宴于集慶殿王乃親祭宗廟告濟平之事角干以下十八將皆進爵而賞賜之贊曰公我之靡竺也文武王八年封商川侯

휘유(諱儒)

角千金公庚信 살기에 살피보면、公은 角千과 함께 新羅眞德王을 보좌하였으며 삼년(六四九)에는 左將으로서 葛嶺縣에 나가 싸워 百濟正福을 殺하였다. 太宗王七年(六六〇) 集慶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王이 친히 百濟를 평정한 일을 고하여 제사를 받들 때、角千 이하 十八將이 모두 進爵하였으며、이어서 상을 주어 칭찬하며 이르기를、『공은 나의 어여쁜 重臣이다』 하였다. 文武王八年(六六七)에는 商川侯에 封하였다.

諱陳

佐麗太祖有功封府院君

食採八百頃

휘진(諱陳)

高麗太祖를 보좌한 공이 있어 부원군에 봉하여졌으며(大邱譜)에는 七谷府院君이라 하고 星州譜에는 星山府院君이라 함)、食採八百頃을 내렸다.

※ 묘는 咸陽鄉校 근지에 있으며、세상에 전하기를 그 일들을 都府院君陵洞이라 일컬기로 굳이 여기에 부기한다.

大邱譜云七谷府院君  
星州譜云星山府院君

墓在咸陽鄉校近地世傳一洞  
稱都府院君陵洞云姑爲附錄

諱順

公以上則世代遐遠系牒不繼故以諱某諱某依舊譜載錄以下則各派譜牒連代相繼故以爲起世

휘순(諱順)

公 이상은 세대가遐遠하고系牒에 이어지지 않으므로諱 누우, 諱 누우로 舊譜에 따라 載錄하고, 이하는 各파의 譜에서 대를 따라 서로 이어지므로 公으로써 起世祖로 삼는다.